(A) 주일로 (A) A

보도자료

我们 拉州市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ı				
	보도일시	2022.12.22.		총 3쪽

담당자 사업담당 박지훈, 홍보팀 조은경(+81-3-3357-5970) postmaster@koreanculture.jp

한류20주년 기념 공연 with 후쿠시마

트로트 여왕·원조 한류 가수 〈김연자〉 & 한국드라마 OST 연주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은 2003년 NHK에서 방송된 '겨울연가'를 계기로 일본에서 시작된 "한류"가 2023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고, 동시에 2011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피해로부터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후쿠시마 지역민들에게 한국으로부터의 따뜻한 응원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 신년특별기획 〈한류 20주년 기념 공연 with 후쿠시마〉를 2023년 1월 18일 후쿠시마시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공연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한류의 원조 '겨울연가'부터 사극 '대장금' 그리고 최근 인기를 모았던 '사랑의 불시착'까지 많은 한국 드라마 OST를 실내관현악단 'Baladin(바라단)'이 연주. 2부에서는 1989년, 1994년, 2001년 총3차례 NHK의 노래대결 프로그램인 홍백가합전에 출연하고, '아침의 나라에서', '아모르파티'등으로 유명한 한국트로트의 여왕이자 원조 한류 스타가수 김연자씨의 무대를 선보인다.



<신년특별기획 한류20주년 with Fukushima-개요>

○일시:2023년 1월 18일(수) 18:30~20:30

○장소: 후쿠신 유메노 음악당(후쿠시마)

○주최: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공동주최: 후쿠시마 민보사

협력: NPO법인 후쿠칸 넷, 한국콘텐츠진흥원

O관람: 후쿠시마현민 등을 무료 초대

(왕복엽서로 신청)

【관람 신청 방법】※일본어만 대응 가능

- ・往復はがきでお申し込みください。 (1枚のはがきで2席まで応募可能)
- ・はがきには、1席希望か2席希望を明記してください。
- ・代表者の郵便番号、住所、氏名、年齡、電話番号を記入のうえ下記の住所にお送りください。 送り先 〒960-8602 福島市太田町13-17 福島民報社事業局「韓流20周年」係
- ※応募多數の場合は抽選となります。

※問い合わせ:福島民報社事業局(平日午前10時から午後5時)電話024-531-4171

【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부 : 한국드라마 OST 콘서트 (바라단)

사계 '아름다운 사계 시리즈'

『봄의왈츠』클레멘타인 / 2006(KBS2)

『여름향기』세레나데 / 2003(KBS2)

『가을동화』로망스 / 2000(KBS2)

『겨울연가』처음부터 지금까지 / 2002(KBS2)

사극 '장대한 역사 이야기'

『대장금』회부가 / 2003-2004(MBC)

『이산』약속 / 2007-2008(MBC)

『동이』애별리 / 2010(MBC)

『해를 품은 달』시간을 거슬러 / 2012(MBC)

『화랑』 죽어도 너야 / 2016-2017(KBS)

번외편『오징어게임』Way Back Then/2021(Netflix)

러브스토리 '마음에 스며드는 사랑의 시'

『올인』All In Theme -처음 만난 그날처럼 / 2003(SBS)

『천국의 계단』보고싶다 / 2003-2004(SBS)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의 꽃 / 2004(KBS2)

『부활』무죄/2005 (KBS2)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그 남자 / 2010-2011(SBS)

『도깨비』Beautiful / 2016(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아로하 / 2020-2021(tvN)

『사랑의 불시착』The song for my brother-다시 난, 여기 /2019-2020(tvN)

◎2부 : 한국 트로트 여왕·원조 한류 스타 가수 〈김연자〉 무대

돌아와요 부산항에

내 나이가 어때서

흐트러진 머리(미다레 가미)

인생일로(진세이 이치로)

민요 메들리

어매

아모르파티

태양은 뜬다(히와 노보루)

【출연자 프로필】

김연자

1977년 '여자의 일생'으로 일본 무대 데뷔.

1988년 '아침의 나라에서'를 일본어로 개사해서 히트시킨 후 일본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대형 트로트가수로 성장. NHK홍백가합전에도 1989년, 1994년, 2001년 총3회 출연.

2009년부터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2013년 발표한 '아모르파 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함.

Baladin(바라단)

클래식 스타일의 작은 오케스트라로 편성은 피아노, 바이올린 I·II, 비올라, 첼로, 오보에, 퍼커션 총 7명으로 구성. 확실한 기술이 뒷받침 된 연주는 속삭이는 듯한 세세한 소리에서부터 크게 울리는 소리까지, 풍부한 감수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한류 음악을 중심으로 한 '치유의 예술품'을 전하고 있음. 2005년 결성된 이후, 200회가 넘는 콘서트를 개최, 각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기공연에는 한국의 우수한 가수를 초청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르의 콘서트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주일한국문화원 공연팀장 박지훈, 홍보팀장 조은경(+81-3-3357-59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